



# 오인회 소식

2015. 9월(제48호)

권두언 卷頭言

## 누가 누구를 미워할 것인가?

"뇌과학에서는 생각/감정이란 0.3초 전에 입력된 감각정보에 대한 뇌의 결론이며, 나는 뇌가 결론 내리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란 것이 나에게 떠올라 알게 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은 자신이 스스로 떠올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떠올라 알게 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상대방도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떠올라 알게 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인간에게 입력하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입력된 믿음에 따라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되신다면 상대방과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미움이 '떠올라 알게 된 미움'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반면에, 상대방은 미움을 내가 일으킨 '내 미움'이란 착각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나나 상대방이나 늘 스스로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떠올라 알게 된 생각들을 말로 옮기고 있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에게 떠오른 생각에도 묶이지 않게 되고, 상대방에게 떠오른 생각에도 묶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조건에 따라 저절로 떠올라 알게 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란 것도 알고 보니 조건화 되어 떠오르는 생각의 내용 중의 일부라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면,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조건화된 생각'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宇絢-

2차 삶의 진실 청년백일학교 졸업식에 오인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불같은 여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견고한 가을 열매! 싹을 틔우고 가지를 뺐은 만물이 한여름동안 쏟아부은 에너지가, 태풍과 폭우를 견디며 때로는 달콤한 햇빛을 온전히 누려 이루어낸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와같이 지난 100일간을 뜨거운 열정으로 치밀한 의식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쏟아부은 세 젊은이가 그 결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셔서 그들의 깊어진 의식과, 그 빛이 드리워진 삶의 변화를 봐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더불어 오인회를 통해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0일 서울에서 모두 함께 만나기를 기약하며.... - 越因 -

졸업식 소개



삶의 진실 100일 학교'는 끊임없는 일깨움과 힌트를 주는 안내자와의 생활을 통해 깨어있는 삶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서 일상에서도 관성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얻는 미내사 프로그램입니다. 올 6월 말에 시작된 2차 청년백일학교에는 라마님, 선혜님, 민창님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세 젊은이들의 100일간의 탐구 이야기와 통찰을 나누는 유쾌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식사 및 다과 준비를 위해서 참석자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 기간 : 메일 수신일 부터 10월 3일 까지
- 문의 : 02-747-2261~2 , 행사당일 : 010-6727-2734 도건님 , 010-5493-1537 연우님

행사개요

- ▶ 장소 : 강남역 12번출구 에스코 빌딩 약도 바로가기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7 (역삼동 649-5)
- 13:00 다과 13:30 백일학교 영상 상영 / 성지님
- 14:00 졸업 발표 / 선혜님, 시명님, 라마님 16:00 축하 및 졸업장 수여
- 16:20 감지인텐시브와 주체 탐구에 대한 발표 / 아릅드리님
- 16:40 청년학교 진행상황 프레젠테이션 "너머스쿨 & 백일학교" / 성지님
- 17:00 프리토크 : / 오현희, 백일학교 일동, 아릅드리, 참석자 전원
- 18:00 마침



졸업 발표 1 - 선혜 "지금 이 순간"

우연처럼 운명처럼 만나게 된 백일학교, 이 곳에 온 첫날, 전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충만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이 초대장을 적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략)... 이곳에서 이 세상이 믿음의 세상이라는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쑥 감정이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내가 있나?'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느낌'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만이 존재합니다. 가슴 따뜻했던 100일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고 충만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얻게 된 귀한 공부와 과정이었음을 알기에 지난 100일간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졸업 발표 2 - 시명 "바라봄 안에서의 끝없는 통찰"

올해 7월,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갖기 전 어떻게 보면 잠시나마 휴가를 보내기 위해 내려온 함양에서 제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의 많은 걱정들과 고통들, 그것들을 여기 있는 동안 사회로 돌아가기 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의 기대를 찾아 내려온 이곳에서, 모든 것이 느낌이란 걸 발견했을 때 다시 사회로 돌아가 느낌 속에 빠져 살기가 싫었습니다.(중략)... 감지로 세상을 보고 지금 내 주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며 항상 과거에 대한 생각과 그로 인한 느낌들에 묶여있던 시간들이 점차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지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속에 살며 그 순간의 굴레에서 얻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졸업 발표 3 - 라마 "진정한 안내자는 내면에 있다"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한 강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 대해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무살 이후로 명상, 최면, 미술치료, 각종 영성관련 책을 읽고 공부했으며 힐링센터 설립에 대한 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내사클럽에서 주최하는 '나와의 소통' 강의를 듣고.(중략)... 진정한 안내자는 내면에 있다는 것, 존재(현상)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백일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백일학교 졸업식날 그동안 공부했던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9월 2일부터 8일까지 함양 수련원에서 '감지 인텐시브'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2일부터 8일까지 7박8일에 걸쳐서 함양 수련원에서 '감지 인텐시브'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백일학교 학생들과 서울 오인회화요모임에 참석하시는 아람드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처음 선을 보였던 '감지 인텐시브'과정은 오인회 회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 4월달에 미내사 서울 강의장에서 무박2일로 진행이 되었었고, 이번에 함양 수련원에서 진행된 7박8일과정처럼 깨어있기 기초와 심화과정을 잇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지인텐시브' 과정에 참석하셨던 백일학교 학생들과 아람드리님의 후기일부를 이번 소식지에 실어 그 체험을 오인회 회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오후 끊임없이 연습을 해보면서 느낌적으로 구조가 파악되는 순간이 들자,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구조로 알아채지기 시작했다. 마음의 전체구조가 들어오는 순간, 온 세상이 환상임이 그저 다가왔다. 모든 것이 믿음의 세계이며 그 믿음에는 그 어떤 진실도 없었다. 순간순간 새로운 믿음의 세상이 펼쳐졌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나'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 생명력이 그저 사용되고 있음만 있었다. 그 구심적인 '나'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창조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창조와 사라짐 또한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아님을 자각했다.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펼쳐질 뿐이었다. 알아채는 것 또한 믿음에 대한 환상일 뿐. 그 어떤 것도 진짜라고 주장할 것이 사라졌다. (중략)...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즉각 그 생각을 멈춰라. 그리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를 사용하라. 라는 말이 이제야 와 닿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로 빠질 때가 많다. 그러나 이를 필요할 때 언제든 멈출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빠짐이라는 것도 전혀 본성에서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도건님 후기 중에서

감지인텐시브 교육을 통해 감지를 세심하게 해보고 실시간 감지, 실시간 믿음과 반응 감지를 하니 주체에 대한 섬세함이나 감이 바뀌었다. 느낌과 반응을 탐구하는 감도 달라졌다. 입자가 고와진 느낌이다. 한 달 전 선생님과과의 대화가 떠오른다. 어렸을 때 의식과(모든 것을 관찰하던 관찰자가 있었고 그것을 의식했다) 10살의 나(행위하는 나)가 분리된 느낌이 있었다. 그때 의식의 의도와 10살의 나의 행위가 달랐는데 선생님 말씀이 10살의 행위자가 관찰자로서의 의식작용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젠 왜 그런 간극이 있었는지 알겠다. 또 다른 대화 하나, 어렸을 때도 가끔 느꼈고 이전 마음공부 하면서 느낀 투명한 주의와 깨어있기 통찰 이후, 투명한 주의의 차이에 대한 말씀. 그전 투명한 주의는 일상적일 땐 느껴지다가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사라지고 감정이 '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통찰이 있으면 고요할 때나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나 절대적으로 동시에 투명한 주의가 있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마음의 방향, 의도와 다르게 자동 반응하는 관성들이 느껴진다.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믿음과 구조들, 그것들을 철저히 감지하고 넘어 가보자. -선해님 후기 중에서

처음 함양에 올 때는 감지를 명확하게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 뿐이었는데.. 지금 그것은 온데 간데가없다... 7일간의 변화중에 가장 큰 것은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되어 생각에서 많은 부분 자유로워 졌다는 것이고 느낌이 온통 내가 아님을 안다는 것이다. 마음의 구조가 단순하게 와 닿고 구조를 알아채면 현상이 사라지는 걸 확인한다. 처음 감지 하나만이라도 확인하고자 했던 나와는 너무도 달라진 상태이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탐구해야하는지 도건님이 말하는 그 도구를 얻은 느낌이다.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 주제를 품고 탐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 흐름을 잡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깨어있기 과정을 마치고 오인회와 계절수업을 들으면서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감지인텐시브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된 느낌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있으나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지 않아 흐름을 형성되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흐름이 형성된 듯하다... 이렇게 형성된 흐름을 스스로 어떻게 잘 흘러가게 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분명 변명일 수 있다.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게도 되고 슬럼프에 빠져서 회의론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변화는 분명히 있다.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안내를 맡아준 성지님 도건님과 함께 선해님 민창님께 가슴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감사와 경외감을 느낀다. -아람드리님 후기 중에서

눈을 뜨고 돌아와 얘기를 하다 다시 눈을 감고 그 의식만 남아 있는 세계로 들어가 본다. 졸립다. 잠이 든 건 아니지만 잠들기 직전의 의식상태다. 그러다가 이제는 여러 생각에 빠지고 그 생각에 의한 느낌에 빠지고 주위 소리에 반응하는 내가 있고 내 몸이 느껴진다. 아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아까처럼 해보자란 의도에 너무 주의가 가있다. 그 의도로 인해 왜 안되더라는생각부터 여러 생각들이 올라왔다. 의도가 아닌 그냥 하자라는 자연스러움이 뭔가 통찰을 주는 것 같다. 어제의 나는 없다. 방금전의 나도 없다. 배웠다는 나도, 알았다는 나도 모두 그랬다는 느낌일 뿐. 그런 느낌들을 내려놔야 배움이 항상 새로운 것 같다. 배운 나도 없기 때문에 산책을 하며 올라오는 느낌들에 모두 말을 붙여본다. 길게 붙이려니 힘들고 그냥 느껴지는 것마다 느낌, 느낌하며 바라본다. 끊임없이 느낌이 올라오고 거기에 계속 느낌 느낌 하며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이는 나에도 느낌을 붙이며 어찌보면 혼자 느낌 놀이를 하고 있다. 주의를 제로로 하지 않는 이상 느낌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같다. -시명님 후기

중에

**청년 백일학교 후원방식**  
 2년 운영후원 : 300만원(일시불) 2년 일시후원 : 120만원(일시불) 2년 24회 후원 : 120만원(1달 5만원) 1년 일시후원 : 60만원(일시불) 1년 12회 후원 : 60만원(1달 5만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 02-747-2261)

**청년백일학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후원액 5595만원)  
 초현 1300만원, 천강 1300만원, 구당 1000만원 지원 300만원, 우현 300만원, 고을 300만원, 기보 300만원  
 화동 120만원, 허유 120만원, 무연 120만원, 문수홍 60만원, 광주나무 60만원, 아람드리 60만원, 토인 60만원,  
 바람 60만원 (11.17,12.17,1.16,3.19,4.29) 디테55만원 (11.20,12.22,1.20,2.23,3.20,4.20,5.20,6.22,7.20,8.20,9.21)  
 술내음 40만원 (2.25,3.25,4.27,5.26,6.25,7.27, 8.25,9.25) 도빈 10만원



## '경험하는 나' 마저도 현상이다 허일 인터뷰(3)

허일님은 청소년 상담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어릴적부터 인간의식의 변화와 잠재능력 개발에 관심을 키우던 중 가족세우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미내사를 알게되었습니다. 깨어있기를 통해 근본에 대해 맛을 보고 현재 강원도 시골에서 두아이와 아내와 살면서 깨달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들어보았습니다.

**편 : 신념을 보게 되는 방법이라든지 계기가 있었나요?**

허 : 상담에는 인지치료 학파가 있어요. 거기서 신념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진 않고,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상담기술이에요. 내 행동에 어떤 신념이 붙어있는지를 찾아가게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요. 이런 행동에 이런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감정에 빠져있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환영받지 못해...,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편 :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과정을 보는 거군요?**

허 :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인지치료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념을 보는 게 낫설지 않고 익숙했던 거죠.

**편 : 깨어있기 과정이나 오인회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요?**

허 : 신념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존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주의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은 몰랐죠.

**편 : 그러면 신념이란 결국 주의와 관련되어있고, 특정한 생각에 주의가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신념이 되는 거라고 새삼스럽게 알게 되셨다는 건가요?**

허 : 네, 그전에는 핵심적인 신념, 의식적인 차원의 신념, 무의식적인 차원의 신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이런 걸 자꾸 찾아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신념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발견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친구와 싸웠어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지나가서 서운했던 감정이 쌓인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 그 친구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지.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어때서?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개가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게 왜? 무시하면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기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다닐 수 있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생각들과 동기, 기준 삼고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편 : 그런 기법을 통해서 평소에 신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었군요.**

허 : 네, 그런데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찾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느끼는 건데.

**편 : 신념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건가요?**

허 : 네, 그전에는 치료나 상담에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인지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이것이 내적인 자유나 편안함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에 붙어있는 주의를 느끼는 것이었던 겁니다.

**편 : 단순히 신념을 발견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마음의 자유라든지 평화를 얻지는 못하지만, 신념에 붙어있는 주의를 느낌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됐나?**

허 : 네

**편 : 그러면 신념을 보게 되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감정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지겠네요?**

허 : 본다는 것이 결국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 느낌이 섬세하지 않으면, ‘어라 이상하다? 난 분명 믿음을 발견했는데...?’라고 여기지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인 주의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명 내가 원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화가 나요. 그리고는 끌려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화가 나요.” 그러자, “그 밑으로 네가 계속 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니 실제로 그렇더군요.

**편 :** 그러면 스스로의 신념을 발견해서, 거기에 가는 주위의 느낌까지 알아챘다고 여겼는데도 비슷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원인을 잘 몰랐었는데,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의를 거기에 주고 있었던 것을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허 : 네.

**편 :** 그 이후에는 어떠신가요? 그런 것이 잘 발견이 되나요?

허 : 의도적으로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굳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편 :** 생활 속의 감정적인 문제 같은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허 : 네.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물론 감정의 영향은 계속 있지만 그것이 존재에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탐구하는 데 사용하죠.

**편 :**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하시나요?

허 : 일단,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느끼고... 느낌이란 왔다가 가는 것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누가 느끼고 있는 거지?’에 초점이 가요. 도대체 이 느낌은 누구에게 느껴지는가... 손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 부딪히는 두 개의 손이 어디에 있는 거지? 그것을 찾아보는데 잘 안 찾아져요. 그것의 실제성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편 :**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에 실제성이 있는지, 그 자체를 탐구를 해보고 싶은 건가요?

허 : 네,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편 :**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뭘 느끼고 있는지, 이것이 애매해지는 그런...?

허 : 네. 지금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느껴지니까 느낌이 있다고 보고, 거기까진 좋은데... 그렇다면 이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것. 그 느낌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중이에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편 :**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고 보고 있는 주체... 라고

할까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탐구를 하시는 과정인가요?

허 : 네. 그냥 보는 거죠. 관심을 두고.

**편 :** 경험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허 : 그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경험대상과나’라는 경험주체가 함께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면, 그렇게 짝이 되어 만들어지는 그것들을 철저히 경험적으로 경험해보니, 둘 같던 그것이 그냥 모두 하나인 것 같았어요. 대상이 주체고, 주체가 곧 대상인 것... 경험적으로 보면 그냥 ‘이것’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보는 무엇이 있고, 이것이 자극이 돼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의 그 순간 그냥 그것 자체가 있는 건데 나누어서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짜지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은 할 수도 있겠지요.

**편 :** 근본적으로 보자면, 나눌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잠깐 동안 현상적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건가요?

허 : 그것이 요즘 저의 경험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누지? 대상과 주체 그것에 대한 느낌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이죠.

**편 :**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허 : 대상과 주체가요.

**편 :** 대상은 보이지 않나요?

허 :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죠.

**편 :** 우리가 컵을 보고 있다고 하면, 대상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의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건가요?

허 : 네. 예를 들면 이 컵에 대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느낌이 생생하게 있는데, 이 느낌 외에 어디에 대상이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느끼는 그 순간에 주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즉각적인 순간에는 보고 있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는....

**편 :** 그 현상이 실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대상과 어찌면 그걸 보고 있는 주체 자체도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실제성이 없다고....

허 :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성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걸 만들기는 그렇고요. 그냥 하나로 느껴져요. ‘아, 이 현상만이 있구나...’ 이 컵의 느낌, 보고 있다는



내면의 상... 지금 이 순간엔 이것이, 보고 있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찾을 수 없고, 이 순간의 느낌... 그 현상만 있는 것...

편 : 이 순간의 '느낌'이라는 '현상'만 있다?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컵을 경험하고 있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컵은 아니지 않나요?

허 : 주체가요?

편 : 네. 컵을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건 컵이 아니지 않나요?

허 : 내가 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잡는 것 아닌가요?

편 : 네. 그건 컵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컵과 구별되는 것 아닌가요?

허 :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안에서는, 컵이 아닌 '나'가 들어올 자리가 굳이 없는 거죠(물론 거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컵'이라고 할 만한 느낌 역시도 따로 없다. 컵이라는 것 역시 마음이 경계그러놓은 하나의 그림일 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느낌'이라는 것도 없다! : 편집자 주). 왜냐면 컵이 없는 '나'라는 건, 과거인 거죠. 컵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이 컵과 다른 나라는 건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편 : 컵을 잡고 있다면, 결국에는 컵 말고 컵과 다른 뭔가가 있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허 :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있었다는 과거 같아요. 컵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이 이걸 잡았다는? 그런데 잡는 그 순간에는, 그 잡힘과 함께 생기는 현상... 그 현상 자체에는 잡는 자도 잡히는 것도 없다는 거죠.

편 : 만일 있다면 그건 과거의 일이다?

허 : 네. 그 시간 안에서. 시간적인 것이고, 기억이고, 생각이고 개념이고...

편 : 그런 의미에서 과거라는 건가요?

허 : 네. 그런 의미에서,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서 잡는 자와 잡는 대상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편 :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나눌 수 있다면 그건 과거다?

허 : 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죠. 이미 말로 된 거고.

편 : 그렇다면, 나와 대상으로 구별되고, 그런 현상들은 결국엔 기억의 산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쌓인 감지가 투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허 : 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편 : 감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깨어있기 기초나 심화에서 공부했을 텐데, 감지에 대해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독자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허 : 저에게 감지는, 그냥 별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생각과 기억이 빠져있는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끼려고 혹은,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한 대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생각으로 가는 에너지가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느껴지는 것.

편 : 그럴 때 느껴지는 형태나 질감 같은 거요?

허 : 네. 색성향미촉과 법, 이런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과 의식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것 자체도 사실 과거의 흔적이고, 경험의 흔적이고...

편 : 그러면서, 내가 어떤 걸 경험한다는 건, 과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허 : 그렇죠.

편 : 예전부터 '나'라는 게 무엇인지 탐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허 : 나는 무엇인가?... 모르겠어요(웃음). 예를 들면, 요즘 보고 있는 책 제목이 '나는 없다'예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면, 그 거대한 의식과 공(空), 무한한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충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전보다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모두가 역시 다 생각인 거죠. 이걸 상상하는 그 순간도 생각이고,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손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편 : 그럼 그 모르겠다는 의미가, '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지만,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겠어요?

허 : 경험적으로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돼요. 예전에는 있다는 걸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했죠.

편 : 예전에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다는 건가요?

허 : 네. 현상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 현상 자체가 그때그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실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당연히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도 역시 그 자체가 이미지고 현상이고 상상이고 환상이죠(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대승기신론(31)

## 월인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는 '존재는 관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너지는 질량으로 환원되고 질량은 에너지로 환원됩니다. 이 말은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그것들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둘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구별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형의 느낌은 사각형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기초 경험이 되어주고 있으며, 사각형의 느낌은 원형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기초 경험이 되어줍니다. 나라는 느낌은 대상의 느낌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은 서로서로 필요로 하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대상이 없으면 나로 느껴지지 않고, 대상 역시 나라는 느낌이 없으면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감각적인 느낌 때문이며, 그 느낌은 서로(相)의 상호관계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체의 상(相)은 텅 빈 거울과 같아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경계를 떠나 있다(遠離一切心境界相)고 했는데, 이것은 거울은 거울에 비친 모든 상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법도 나타낼만한 것이 없다(無法可現)는 말은 진정한 법은 드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각성을 이룬 부처님이 팔만사천경을 모두 설법해도 그중 어떤 것도 진정한 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법(法)도 없으며 결국 남은 것은 상(相)입니다. 진짜 법(法)인 거울은 거울에서 나올 수 없으며 나오는 것은 모두 상(相)일 뿐입니다. 각조(覺照)라는 것은 각성의 본체가 태양처럼 밝게 무명(無明)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고 어두운 중생들의 마음을 깨달음의 빛이 비추는 것이 각조(覺照)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각(覺)이라는 것은 결코 상(相)도 아니고 나타낼 수 있는 법(法)도 아니어서 사실 각조(覺照)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도 어느 책에서 나온 글도 절대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상(相)이기 때문에 진정한 각성의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각성의 본체가 가지고 있는 상(相)의 첫 번째인 여실공경(如實空鏡)입니다.



二者, 因熏習鏡, 謂如實不空, 一切世間境界悉於中現, 不出不入, 不失不壞, 常住一心, 以一切法卽  
 이자, 인熏습경, 위여실불공, 일체세간경계실어중현, 불출불입, 부실불괴, 상주일심, 이일체법즉  
 眞實性故 : 又一切染法所不能染, 智體不動, 具足無漏薰衆生故.  
 진실성고 : 우일체법소불능염, 지체부동, 구족무루熏중생고.

둘째는 인熏습경(因熏習鏡)이니, 여실불공(如實不空)을 말한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잃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서 일심에 항상 머무르니, 이는 일체법이 곧 진실성이기 때문이며, 또 일체의 염법이 더럽힐 수 없으니 지체(智體)는 흔들리지 않으며 무루(無漏, 번뇌 없음)를 구족하여서 중생을熏습하기 때문이다.

각체상(覺體相)의 두 번째는 인熏습경(因熏習鏡)입니다. 인(因)은 내재된 원인을 말하며, 각성에 있어서의 내재된 원인이란 우리 마음의 타고난 불성(佛性)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내성(內省, 자신을 반성하고 살펴보는 것)을 하여 타고난 각성의 본체인 자신의 본질로부터 조금씩 물들고 익혀지는 것을 인熏습경이라고 합니다. 각체상의 첫 번째는 여실공경(如實空鏡)인데 두 번째는 여실불공(如實不空)입니다. 여실불공(如實不空)이란 단순한 공(空)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울에 비친 상(相)을 통해서 끊임없이 법(法)이 나오고, 수많은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기에 불공(不空)이라고 한 것입니다. 공(空)이라 말할 때는 본질 그 자체를 일컫는 것이고, 불공(不空)이라고 말할 때는 그 본질로부터 수많은 법(法)과 가르침과 현상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텅 빈 거울 같지만, 그 거울 안에 일체 모든 세계의 상(相)과 경계가 들어있고, 내재된 본각의 상(相)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각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각성의 본체이고, 시각은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성의 본체는 결코 현상화될 수 없으며,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현상화된 상(相)입니다. 내재적인 본각의 상(相), 즉 시각(始覺)이 마음의 텅 빈 거울로부터 나타나서 스스로 자신을熏습시키는 것이 인熏습경의 의미입니다.

모든 세간의 경계가 안에서 나타난다(一切世間境界 悉於中現)는 말은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상(相)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느낌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출(不出)은 모든 상(相)이 그 거울로부터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감지(感知: 깨어있기™용어)이며, 거울 안의 상(相)과 같습니다. 보아서 아는 것은 시각적인 감지이고, 들어서 아는 것은 청각적 감지이며, 만져서 아는 것은 촉각적인 감지요, 맛보아서 아는 것은 미각적 감지, 냄새맡아 아는 것은 후각적 감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므로 우리는 느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는 마야(Maya)이고 환상이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의 거울 속에서 상(相)은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며 내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느낌의 세계임을 뜻하는 말이 불출(不出)입니다.

불입(不入)이란 그 안에 정말로 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거울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거울을 물들여야 하는데, 그 상(相)은 거울 자체를 조금도 물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입(不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사들이 "이 세상이 온통 폭우와 폭설로 뒤덮였어도 내 땅은 한 치도 젖지 않았다." 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우로 젖은 땅이 실은 한 치도 젖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울이 수많은 상(相)들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어떤 상도 거울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기아로 가득 차도 마음의 거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상(相)들을 다루는 건 괜찮습니다. 조화로운 상으로 세계상을 바꾸어야 겠지요. 그러나 그 상(相)이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상(相) 속에 빠져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상(相)이기에 잃어버릴 것도 없고 붕괴될 것도 없습니다(不失不壞). 우리가 생로병사(生老病死)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은 마음속의 느낌이고 상(相)이며,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는 의타성의 세계일 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상(相)이 망가져도 각성의 본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체의 모든 염법이 결과적으로는 결코 물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一切染法 所不能染). 거울 속의 상에 아무리 물들었다고 여겨져도 거울은 전혀 물들지 않았고, 그 상들이 어떤 얘길 한다 해도 거울 자체는 늘 진실입니다. 이것은 거울 속의 상과 거울이라는 본체가 서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울 속의 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 상들이 결코 거울을 전혀 물들이거나 바꿀 수 없기에 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울속의 상이 단순한 공(空)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거울 자체도 없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각성의 본체를 알게 하는 지혜의 본체는 흔들리지 않아 무루(無漏, 번뇌 없음)를 만족하여 중생을 훈습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면 내재적인 각성이 자신을 훈습하여 가르쳐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인훈습경(因熏習鏡)이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三者, 法出離鏡, 謂不空法, 出煩惱障 智障, 離和合相, 淳淨明故.  
삼자, 법출리경. 위불공법, 출번뇌애, 지애, 이화합상, 순정명고.

세 번째는 법출리경(法出離鏡)이니, 불공법(不空法)이 번뇌애와 지애를 벗어나고 화합상을 여의어서 깨끗하고 맑고 밝게 되기 때문이다.

법출리경(法出離鏡)은 거울로부터 법(法)이 나와서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성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과 법(法)을 통해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를 벗어나고, 각과 불각을 화합하는 화합상마저 떠나 깨끗하고 맑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四者, 緣薰習鏡, 謂依法出離故, 遍照衆生之心, 令修善根, 隨念示現故.  
사자, 연훈습경. 위의법출리고, 편조중생지심, 영수선근, 수념시현고.

네 번째는 연훈습경(緣薰習鏡)이니 법출리에 의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선근을 닦도록 하여 중생의 생각에 따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연훈습경(緣薰習鏡)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본성에 물들고 익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선근(善根)은 진리의 법을 한번 들으면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상근기(上根機)를 말하는데 이런 선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그것을 닦도록 하는 것이 영수선근(令修善根)의 의미입니다. 이상 살펴봤듯이 각성의 본체가 가진 상(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의 텅 빔을 발견하는 여실공경(如實空鏡),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내재된 각성으로부터 배우는 인훈습경(因熏習鏡), 세 번째는 깨달은 사람의 글이나 말을 통해서 타인의 각성을 돕는 법출리경(法出離鏡), 네 번째는 스승 등의 외부 인연을 통해서 훈습을 받는 연훈습경(緣薰習鏡)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깨달아가지만, 이 또한 모두 상(相)이기에 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티끌 같은 것이라도 상(相)이라는 것은 마음의 흔적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현상을 한 번 주인 삼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상(相)을 주인 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각(不覺)이라는 것은, 우리 방식대로 설명하자면 어떤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믿음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믿음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태이며, 감지, 생각, 감정 등 마음의 상(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배경에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흔들리는 것만 봐온 사람이 있다면 결코 우리처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림이 느껴지는 이유는,



흔들림이 이미 경험한 흔들리지 않음에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의 상(相)이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상(相)을 배경으로 하여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의 모든 상(相)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승기신론은 그것을 깨달음이라는 상(相)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함을 배경으로 하여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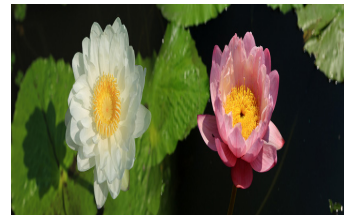
원문 보겠습니다

所言不覺義者，謂不如實知眞如法一故，不覺心起而有其念，念無自相不離本覺，猶如迷人依方故迷，  
 소언불각의자, 위불여실지진여법일고, 불각심기이유기념, 념무자상불리본각, 유여미인의방고미,  
 若離於方則無有迷。  
 약리어방칙무유미.

불각(不覺)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여법이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망념은 자상(自相)이 없으므로 본각(本覺)을 떠나있지 않으니, 비유하자면 방향을 잃은 사람이 방향에 의하기 때문에 혼미한 것과 같다. 만약 방향을 떠난다면 방향을 잃음도 없다.

여실하게 진여법이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명(無明), 즉 마음이 어둡고 맑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 무명(無明)에 의해서 불각심(不覺心)이 일어나고 망념(妄念)이 생겨납니다. 대승기신론 소에서는 이를 업상동념(業相動念)이라고 말하는데, 쌓여 있는 상(相)이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을 일으키면 망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방식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컵을 보면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감지(感知: 깨어있기<sup>TM</sup> 용어)가 느껴집니다. 그 이름을 몰라도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어떤 느낌을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컵의 감지가 있어야 하고, 그 감지를 인식하는 작용도 생겨나야 합니다. 대승기신론 소(疏)에서는 마음의 상(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분(相分)이라 하고, 상분을 인식하는 작용을 견분(見分)이라고 합니다. 상분(相分)은 감지이고, 견분(見分)은 감지를 투사하는 주체입니다. 무엇이 '보이는' 것은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사물을 무엇으로 '볼' 때는 마음속의 감지가 작용하여 투사된 것입니다. 컵을 감각적으로 경험한 후에 그것과 대비되어 발견되는 내면의 흔적인 감지가 투사되고, '내가 컵을 본다'는 인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각심이 일어난 것이고, 마음의 경계가 생겨 스토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음의 상(相)이 없다면 불각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지라는 것은 상대적인 반쪽을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음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마음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견(見)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그것과 상대(相)되는 것을 배경삼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있다가 시끄러운 경기장에 가면 굉장히 소란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고요한 상태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 그것에 익숙해졌기에 그렇습니다. 원래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다른 시끄러운 곳으로 옮겨가면 그렇게 소란스럽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소란스러움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배경에는 고요함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끄럽다고 느끼는 '나'라는 관성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함을 비추어 그것이 어떤 패턴이 되었는데, 그 패턴을 가진 채 소란스러운 장소에 가면 그 패턴이 흔들리게 되고, 이것을 '내가 소란스럽게 느낀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고요함과 동일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함을 비추어 고요함으로 진동하던 상태에서 소란한 곳으로 가면, 약하게 진동하고 있던 고요함이 외부의 강한 진동을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또는 자극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움을 인식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고요함이 경험되어 있어 서로 대비되기 때문이고, 고요함과 동일시 되어있는 '나'는 이 인식작용을 조금 더 표면적으로 끌고 나와서 '내가 시끄럽게 느낀다'고 여기게 합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불각심(不覺心)은 기본적으로 깨달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상(相)이 만들어내는 스토리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애는 아직 이런 스토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고서도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그 상(相)을 넘어서야 합니다. 스토리에서 빠져나와 그 스토리를 보는 것이죠(그런데 여기서, 스토리를 스토리로 '본다'라는 것의 딜레마를 넘어가야 하는 마지막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늘 주체-대상이라는 어떤 스토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스토리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며 서로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채고 마음에서 떨어져 나와 생각을 넘어서 있으면 그것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 어떤 스토리가 있다 해도 아무 상관 없죠. 이것이 스토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드디어 마음의 작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과 상관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화과정에서 "아픔은 아픔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청년백일학교 학생들과의 인터뷰

성지

지난 소식지 말미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번 호에는 함양 백일학교 학생들의 내면 탐구 진행 과정과 깨어있기, 감지 인텐시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통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진행된 감지 인텐시브에 대한 정리와 그 동안 백일학교에서 있었던 통찰에 대한 시명 님과 선혜 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세한 전문은 차후 홈페이지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이 사용하는 이름은 앞글자만 표기했습니다. 시명님-시, 선혜님-선, 성지님-성, 도건님-도, 이하 인터뷰 전문입니다.)

**성: 이번 감지 인텐시브 교육을 받고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무엇인가요?**

선: 감지한다는 ‘감’이 입자가 고와진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깨어있기 기초를 들으면서 탐구하는 ‘나’도 현상이라는 것이 알아차려졌고 그 후로는 모든 게 현상이라는 게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다 현상이구나, 이야기하는 나도 다 현상이구나. 그것 이상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덧없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주체를 탐구하는 데 있어 섬세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었는데 감지 인텐시브를 하면서 섬세해져가니까 전과 대비되어서 더 섬세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텐시브 시작 전날 오인회 모임 중에 모든 것이 마음 속 얹이었고, 그런 ‘얹’으로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그 통찰이 7일간 인텐시브 과정에서 더 분명해졌고, 그래서 더 쉰 느낌이나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뭘 붙잡지 않고 붕 떠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나도 없고, 느낌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보고 있는 나, 그런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인텐시브를 하면서 그런 감이 섬세해지고 정밀해진 것 같아서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백일학교에서 이런 감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규 과정으로 자리잡는다면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 ‘나’라는 것은 현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백일학교에 온 첫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말로서는 막연하고 지식 차원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백일학교 생활 자체가 그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품고 생활하며 그런 체험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내 몸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나의 생각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런 체험들이 크고 작게 있었어요.

또 깨어있기 기초 때 침묵의 바탕을 느끼면서 모든 느낌과 생각 이미지, 나처럼 느껴지는 주체감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와 닿았고, 그게 와 닿으니깐 그 다음부터는 동일시된 상태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동일시되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느낌이 현상이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렇다는 것을 느낀 거죠. 제가 뭔가 고집이나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 지속될 때 ‘주체감’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땐 어떤 상태, 믿음, 느낌, 기준과 동일시되어 있구나를 느낌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푹 놓아지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성: 모든 느낌과 생각, 이미지, 나처럼 느껴지는 주체감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와 닿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와 닿았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나요?**

선: 깨어있기 기초를 하면서 ‘침묵의 바탕으로 존재하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낀 것 같아요. 침묵의 바탕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도 없는 고요의 상태로 들어간 건데요. 그당시 침묵의 바탕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교육 내내 감지가 분명해지려는, 탐구하려는 주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침묵의 바탕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그것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느낌이긴 한데 그것을 뻘뻘하면, 보고 있다는 특별한 느낌 없이 계속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나 방향성, 주체 없이 그 상태로 있었을 때에도 느낌과 생각,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냥 이 수많은 이미지와 느낌, 생각, 에너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성: 사실 혼자 있을 때나 잘 때도 그렇게 의식하는 ‘나’라는 것이나 의도들이 반복되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유독 그때 ‘나’라는 것마저 하나의 현상이구나 하는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적인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선: 네, 그 경험이 있는 후 생활을 하면서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 점은, 알고 보면 모든 순간이 그런 알아차림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생활이라고,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바탕은, 두 번째 깨어있기 기초를 하면서 제가 되게 진지했었어요. 두 달 전 깨어있기 기초를 처음 했을 때는 마냥 신기하고 재밌고 감사하는 상태에서 들었다면 이번에는 감지를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강력한 기준과 방향성이 있었어요. 깨어있기 기초를 들으면서 굉장히 느낌들이 섬세해져 가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도 뭘지 모를 답답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성지님께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느낌, 그 느낌이 무슨 신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느낌이 뭘지 라는 질문이 있었고 계속 그 느낌을 잡고 있었어요. 그 느낌을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답답한 느낌에 집중하면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탐구하다가 안내에 따라 침묵의 바탕으로 쭉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 삼십분 정도 되었나, 침묵의 바탕에서 아무런 의도나 주체 없이 모든 느낌, 생각, 이미지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다시 안내에 따라 의식으로 나오니까 어, 분명 내가 탐구를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탐구하고 있는 나, 그것이 나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온데간데없고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뭐랄까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탁 왔어요. 멍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이것도 느낌이었구나, 이런 게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탐구하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강한 주체였고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느낌에 민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더 분명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 느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 그건 다 다른 기준들과 믿음들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묘하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고 느끼고 그것이 주체라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 : 그렇게 진짜 같은 '나'마저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때 느낀 거군요. 그런 의도 없는 상태와, 아주 강하게 탐구하는 상태를 오가면서 대비가 되었군요. 살펴보고자 하는 주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찰이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선 :** 그렇죠. 사실 주체 탐구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고 들어서 주체를 탐구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땐 그저 감지가 더 분명해지고 섬세해지고 싶다는 강한 기준과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열망, 방향성이 바로 주체였고 그것도 그냥 느낌이었구나 하는 것이 와 닿았어요.

**성 : 그런 마음의 아주 주력이 된 흐름을 바로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현상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와 닿았던 거군요**

**선 :**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생활하면서 그 일어난, 대비들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성 :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선 :** 사실 그 느낌을 깨어있기 기초 때 받고서도 뭔가 좀 아쉬운, 뭔가 더 해야 하나 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지 인텐시브를 하면서 앎과 믿음이라는 느낌의 세상이 정밀해지니까 그것마저도 놓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것도 없는 느낌이 들어요. 일어나는 느낌, 현상,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부족해'라는 기준에서 올라오는 탐구는 아니고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믿음들이 해체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는 깊어져 가는 것도 보이고요. 강력한 느낌들마저도 힘을 잃게 되고 느낌이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요하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성 : 바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가 현상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선 :** 네.

**성 : 그것을 아는 것은 누구죠?**

**선 :** 이것도 일어난 현상이죠.

**성 : 그렇다면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뭘까요? 혹은 우리는 계속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선 :** 그동안 본질이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질문을 하는 내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어요. 결국, 질문에 대해 답을 한다면 어떠한 대답이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질문만 해도 하나의 현상인 거죠. 대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질은 그렇게 이름이나 드러나지 않음, 그것 자체, 그런 말이 좀 떠오르네요.

**성 : 시명 님은 감지 인텐시브 하면서 어떠셨나요? 또는 백일학교 생활이 예전 생활과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시 :**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커다란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깨어있기 기초 같은 경우에는 단식 중에 수업을 듣게 됐었고 단식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수업 동안 계속 졸았었거든요. 그런데 잠에 빠지는 것과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통찰이 많았어요. 자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갔다 깨어나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보이면서 느낌들이 갑자기 확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눈을 뜨는 순간 모든 느낌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느낌이 올라온다는 것을 몇 번 느끼고 알았었지만 깨어있기 기초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해졌어요. 감지 인텐시브를 통해서는 느낌과 관성, 패턴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마지막 날에는 '있다', '없다'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없기' 때문에 '있는' 거구나 했어요.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없다'가 인식이 되면서요.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는 것처럼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와 닿았습니다. 통찰하는 '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그런 '내'가 없기 때문에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걷는다 라는 것도 걷고 있는 '나'가 특별히 없는 마음의 장에 걸고 있는 내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찾다가 보니 《깨어있기》책에 나오는 불이(不二)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단어가 생각나면서 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누고 있는 내가 생겼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나누고 있는 '나'만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도, 바다도, 지금 보고 있는 컵도 이것을 컵으로 이름 붙였기 때문에 나누는 내가 생겨나서 대상과 내가 되어버린 거고 하늘이라는 것도 하늘이라고 이름 붙여서 구분 짓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뉘진 거라는 것이 와 닿았어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다.

**성 : '있다'를 통해서 '없다'가 증명되고 '없다'를 통해서 '있다'가 증명되고...**

시 : 아까 이야기 나온 본질의 바탕, 침묵. 내가 침묵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느껴지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이고', 반대로 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없음이라는 본질의 바탕 그게 또 인식이 돼요.

성 : 그런 현상의 드러남이 침묵을 생생히 증거하는 거예요?

시 : 그렇죠. 그리고 침묵이 있다는 것도 느낌이 올라온다는 증거물이 되고요.

성 : 그렇다면 인텐시브 넷째날인가요, “없다’는 것이 없다면 ‘있다’는 것도 없다, 없다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시 : 네, ‘없다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뿐인 거죠.

성 : 곧 있으면 졸업이에요. 두 분 졸업 발표도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전달하고 싶은지? 요즘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시 :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 : 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가려고 하고 있나요?

시 : 패턴과 관성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주의의 흐름이나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자세히 해부해볼 생각입니다

성 : 패턴과 관성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주의의 흐름이나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자세히 해부해볼 생각입니다

시 : 네. 지금 명확하게 감지를 느끼듯이 그 느낌의 패턴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봐야겠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 : 선혜님은 졸업발표에서 어떤 것들을 나눠보고 싶은지요?

선 : 계속 탐구 중이구요. ‘내’가 믿음이고 느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 : 나와 믿음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성 :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선 : 그것이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느끼고, 그 중심된 통찰이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 아까 선혜 님에게 본질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물음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다. 궁금해 하는 ‘나’가 현상이다’라는 대답이 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어록에서 선사들이나 스승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볼 때 스승들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나’를 비취주죠. 바로 그 높이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 물음 자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지금 체현되고 있구나, 선혜 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지점이 언뜻 느껴진 같아서 아주 멋진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라마님, 선혜님, 시명님 세 청년들이 치열하게 탐구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오인회에서도 탐구하면서 변화가 있으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순서도 마련했어요.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졸업식이기 때문에 전보다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귀한 시간에 대해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도건 : 정말 보물과 같은 존재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명 님이나 선혜 님의 통찰과 경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귀한 존재를 만난 것 같아서 감사를 느꼈고,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무척 행복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시명 :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잘 왔고, 제게 맞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백일학교에 감사합니다.

선혜 :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문득문득 올라오는 느낌들은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해서 꿈인 것 같고, 참 귀하고. 지금까지 백일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하고, 함께 해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지 : 저도 즐거웠고 백일학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더 치열하게 탐구의 끈을 놓지 않고 같이 탐구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일학교 할 때마다 느끼지만 귀한 분들이 오셔서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백일학교도 기대가 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졸업식 날 발표로 더 생생하게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학교의 진행상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yayahew@naver.com](mailto:yayahew@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너머스쿨&백일학교카페  
<http://cafe.naver.com/numerschool>  
백일학교 게시판  
<http://www.herenow.co.kr/bbs/zboard.php?id=100dayschool>  
(오인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 10월 10일 백일학교 졸업식에 부디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2쪽을 참고해주세요.)